

요산 김정한의 자기검열과 이념적 모색*

오현석** · 차윤정***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4. ‘민족과 민중’의 호출을 통한 이념적 모색 |
| 2. 해방기 요산의 이념 모색과 민중성과의 간극 | 5. 나오며 |
| 3. 각인된 사상문제와 요산의 자기검열 |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전쟁기 요산 김정한의 소설 <병원에서는>과 당시 에세이 등을 중심으로 작가의 소설 창작 의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요산의 해방기 행적과 의식을 추적하여 한국전쟁기와 연결 지점을 찾고 기존 요산 문학 연구의 방향과 다른 방식의 소설이 전개된 원인을 분석하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요산 김정한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해방기 사회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좌파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다. 그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수연구원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는 문학, 예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좌파 활동을 하며 여러 단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우파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의 활동이나 이념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좌파는 남한에서 불온한 사상을 지닌 제거 대상이 되었으며, 요산 김정한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념적 전향이 필수임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요산 문학의 저항성, 민중성, 리얼리즘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은 이런 기존의 요산 문학 틀로는 분석하기가 어려운 작품이다. 한국전쟁기 작가들은 국가의 검열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종군작가로 활동하거나 반공작품을 창작하여 이념성을 증명했다. 소설 <병원에서는>도 요산 김정한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이념적 전향 후 자기검열과 이념 증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소설은 김정한의 작품 중 거의 유일하게 반공의식이 표면화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병원에서는>은 첫째, 김정한이 한국전쟁기에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며, 둘째, 자신의 이념적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셋째 자기검열을 통한 이념적 모색을 위한 방편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문단복귀 이후 김정한의 작품은 다시 민중에게로 향한다. 소설에 다시 민중이 등장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쏟는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단순히 회귀로만 읽히면 안 된다. 이념의 전향과 반공문학 창작을 통해 자신을 감추고 살았어야만 했던 김정한이 생존의 위협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민중과 분단 한국의 문제에 목소리를 낸 것이다. 분단은 결국 이념의 문제이다. 이념에 희생된 수많은 동료들과 요산 자신도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웠다. 그의 생각은 결국 분단국가를 탈피하는 것과 민중이 중심이 되는 국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요산은 1960년대 이후 분단국가라는 한국 사회의 문제 속에서 민중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적극적으로 사회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 요산, 김정한, <병원에서는>, 반공주의, 민족주의 자기검열, 한국전쟁, 좌파, 민중

1. 들어가며¹⁾

요산 김정한의 소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까지 민중·민족·저항문학으로 수렴되어 왔다. 김정한 문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 역시 이런 시각을 거의 거스르지 않았다. 오히려 민중·민족문학운동이라는 당위성을 가진 요산 김정한 문학의 아우라를 지키려는 연구자들의 연구가 “관성적 독법이 요산의 생체험의 중대 부분을 결락한 결과”²⁾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다. 즉, ‘요산 김정한’이라는 키워드가 요산 문학작품과 그 연구의 전반을 뒤덮어 버려서 요산이 생산재로서 연구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민중·민족·저항문학에 호명되는 소비재로서 소모되는 상황은 분명 지양되어야 할 문제적 지점이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기존의 연구 관점에서 벗어나 탈요산-김정한론을 위한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요산 김정한 문학’이라는 기표를 ‘저항작가 요산 김정한’이 아니라 ‘인간 김정한의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는 요산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김정한 문학의 절필담론에 대한 반론, 희곡 <인가지>의 해석 논란, 해방기 요산 김정한의 문학 활동, 최근의 미발표 소설에 대한 연구 등 기존 연구의 틀과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요산 김정한 문학 연구의 확장가능성에 방점을 둔 연구들이 이어졌다. 그동안의 주류 연구

1) 이 논문은 2018년 제21회 요산문학축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요산 김정한과 분단, 민족의 제문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을 밝힌다.

2) 김경연, 「김정한 미발표 장편 자전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77집, 한국문학회, 2017, 268쪽.; 최원식, 「90년대를 다시 읽는 요산」, 『김정한-대쪽 같은 삶과 문학』, 새미, 2002, 55쪽 재인용.

흐름에 대한 반기는 김정한 문학연구에 생채기를 내고 그 의미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박제되어버린 요산 김정한 문학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먼저 조갑상은 김정한 문학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고 빈칸으로 남아 있는 지점들을 가리켜 “요산 김정한 문학은 모든 게 다 드러난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³⁾이라고 지적하고 요산 문학 연구의 전반적인 문제점들과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해주었다. 황국명⁴⁾은 요산의 절필 문제를 다루면서 절필의 의미와 절필 담론을 대하는 연구자들의 시각을 분석했다. 특히 박태일의 연구로 촉발된 <인가지>의 친일문학 논쟁에 대해 연구자의 고정된 관점이나 선입견을 지양해야 본래의 김정한 문학을 볼 수 있음을 언급했다. 박태일의 연구⁵⁾는 희곡 <인가지>를 부왜문학으로 정의하여 김정한 문학 연구의 새로운 해석을 촉발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 김경연은 미발표 자전소설 연구를 통해서 김정한이 “식민지 시기 자신에게 문학은 해방투쟁이나 민족계몽을 위한 대설이라기보다 이 지엄한 대의에 과감히 투신하지 못한 자의 분노와 변민의 기록이었다는 요산의 고백”⁶⁾에 주목하지 않는 기존 연구를 비판⁶⁾하며 요산을 새롭게 읽어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고에서는 그동안 김정한 소설 연구에서 등한시되었던 한국전쟁기⁷⁾ 요산 김정한을 연구의 장(場)으로 소환하고자 한다.

-
- 3) 조갑상, 『요산 김정한 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역문학연구』 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11쪽.
 - 4) 황국명, 『요산문학 연구의 윤리적 전회와 그 비판』,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289-318쪽.
 - 5) 박태일, 『김정한 희곡 『隣家誌』 연구』,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87-121쪽.
 - 6) 김경연, 『김정한 미발표 장편 자전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77집, 한국문학회, 2017, 267쪽.
 - 7) 한국전쟁기에 대한 시기 설정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전쟁발발부터 휴전까지의 시기(1950.6.25.-1953.7.27)로 보고 이 시기에 요산이 발표한 작품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전쟁기 요산 김정한에 대한 연구는 멀리는 절필담론으로 인한 생략된 지점이었으며, 가까이는 작품의 질적, 양적 문제와 작가 신상의 문제로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소외의 영역이었다.⁸⁾ 본고에서는 이 시기 김정한의 작품 중 <병원에서는>(1951, 『부산일보』)을 중심으로 김정한의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의 형성, 전쟁으로 인한 이념 확인 및 표출, 작가의 의도와 작품 심층에 있는 이념적 문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소설은 전쟁으로 인한 이념의 투쟁 현장에서 발동한 억압과 검열의 정치학을 김정한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다. 즉, ‘인간 김정한’과 ‘작가 김정한’의 간극, 이념의 증명 앞에 선 작가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본 연구는 한국전쟁기 요산의 이념적 모색을 고찰함으로써 요산의 절필 담론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지점이 분단문학에서의 요산문학이다. 한국전쟁기 문학은 분단문학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분단문학은 분단을 경험했거나 경험 중인 국가에서만 존재가능한 문학으로 우리는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나뉘고 민족이 분열된 상황에서 남북 분단문학이 탄생했다.⁹⁾ 한국 이외에도 베트남, 독일 등 분단을 경험했던 국가들은 국

8) 요산 김정한의 한국전쟁기 소설은 <병원에서는>(1951, 『부산일보』), <도구>(1951, 『한일신문』), <처시하>(1953, 경남공보) 등이 있다. 이 시기 작품들은 분량 및 내용 면에서 거의 콩트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중 <병원에서는>은 다른 두 작품들과는 달리 소설의 형식을 갖추었고 분량 면에서도 다른 두 작품과 차이가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반공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참고로 본고에서 다루는 한국전쟁기 김정한의 이념이나 의식을 <도구>와 <처시하>에서는 논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논의로 두겠다.

9) 김승환, 『분단문학과 분단시대』, 『분단 문학 비평』, 청하, 1987, 20쪽. 국가나 민족의 개념은 근대 이후 생겨난 개념이기 때문에 분단문학 역시 근대 이후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는 분단문학이 태동한 바탕에 근대 권력의 충돌이 내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분단문학은 긍정과 부정의 속성을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가 간, 국가 내의 이념 대립과 근대 이후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해 주체가 되거나 희생물이 되어 나라가 쪼개지고 국토가 분리되었다. 결국 분단문학은 표면적으로는 분리된 국가에서 각각 자생하는 문학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념 대립과 권력 욕망이 가져온 갈등의 안타까운 결과물이다. 특히 한국의 분단문학은 미소 냉전 체제의 산물로 그 시작점에서부터 처절하게 이념투쟁을 벌이며 반공문학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작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분단’이라는 생소한 언어를 체화하고, 더 나아가 반공문학으로서 자신을 확인, 증명, 표출시켜야 했다. 요산 역시 분단의 문제는 곧 이념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해방기 이후 자신의 약점이 된 좌파 활동과 의식을 뒤돌아보며 침전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은 같은 민족인 남과 북에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다. 그래서 한국의 분단문학은 가장 먼저 6·25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한국전쟁에 국한해서 정의하는 것은 분단문학의 한 부분에 국한된 편협한 시각이다. 1945년 해방 직후 미·소 군정의 남북 통치는 이미 분단의 씨앗을 한반도 전체에 퍼트려놓았고, 임시정부가 인정받지 못하고 김구 선생이 희생되면서 대한민국 통일국가의 수립은 불가능해져버렸다.¹⁰⁾ 그러므로 이런 당시 상황을 염두하고 보면 넓은 의미에서 “분단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1945년 해방부터 분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가 분단시대의 문학”¹¹⁾이라 할 수 있다.

요산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5편¹²⁾,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3

10) 김정환, 『통일방안도 가시적 청사진을』, 『황량한 들판에서』, 황토, 1989, 144-145쪽.

11) 임현영, 『분단시대의 문학』, 태학사, 1992, 221쪽. 임현영은 소재적 측면에서 분단시대의 문학 역시 단순히 전쟁이나 남북대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겪는 모든 갈등과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학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12) <옥중회갑>(1946, 『전선』), <설날>(1947, 『문학·비평』), <서거픈 이야기>(1948, 『산업신문』), <길벗>(1948, 『중성』), <하느님>(1949, 『부산신문』)요산의 해방기 작품은 현재 5편이 전해지고 있지만 추가로 작품이 발견될 여지가 충분하다. 최근에 부산대 이순욱 교수가 1948년 1월 7일자 『산업신문』에서 <서거픈

편의 작품을 발표하고 휴전 협정 후 1956년까지 6편의 작품을 내놓았다. 1956년 <개와 소년>을 발표한 것을 끝으로 1966년 <모래톱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때까지 10여년을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 시기가 요산 문학에서 진정한 절필기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다소 문학적 형상화는 미약하지만 창작 활동을 이어오다가 전쟁 후 문학 활동을 잠정 중단한 사실은 본인의 삶에서 이념의 지향점과 현실적인 문제로 문학을 돌볼 틈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요산의 해방기와 한국전쟁기를 연속선 상에 놓고 그 시기 소설이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읽힐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즉, 요산 김정한은 분단의 시대를 오롯이 맨몸으로 맞닥뜨린 작가라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병원에서는>은 해방기 요산의 정치·사회적 활동이나 작품세계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특이한 작품이다. 소설 곳곳에 분단의 영향이 스며들어서 이념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즉, 국가가 지향하는 세계와 국가의 횡포를 마주한 개인이 서로 대면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이 이념 선택으로 인해 자기의 과오를 부정하고 반성해야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병원에서는>과 요산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요산의 해방기 행적과 작품 세계를 다시 한 번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기 <병원에서는>과 같은 반공문학 성격의 작품이 창작된 연원과 분단 시기 이념 문제로 생사의 기로에서 몸부림쳤던 작가의 내면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 소설이 요산의 문학 활동에서 오롯하게 반공문학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요산의 또 다른 의식이 녹아 있는지도 분석할 계획이다.

<이야기>를 발굴했으며, 또 1948년 10월 발행된 『중성』 7호에서 김정한의 소설 <길벗>을 발굴하여 공개했다. 이들은 그간 김정한 소설 자필 목록에조차 없기 때문에 작품 존재 자체가 처음 알려진 경우로 70년 만에 발굴이 되었다.

2. 해방기 요산의 이념 모색과 민중성과의 간극

요산은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경남지부에 참여하여 부산·경남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좌파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민위원회, 민주주의민족전선 등의 중도 또는 좌익계열단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적극적인 정치, 문화, 예술 활동을 했다. 문학 부문 활동은 조선문학동맹 부산지부장을 맡았으며¹³⁾ <옥중회갑>, <설날>, <길벗> 등 좌익계열의 이념과 운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을 남겼다. 즉, 해방기 김정환은 좌파지식인으로서 그 어떤 시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의식을 드러내며 살았으며, 좌익계열 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문학창작 활동을 병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 요산의 문학작품들은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라 호소력 짙은 이념의 도구로서 작가 자신이 지향하는 이념을 드러내기 위한 선동기제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¹⁴⁾

호출 어머니는 급기야 눈에 새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뜻밖에 새 대신으로 죽은 남편의 피투성이 된 환영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1946년 시월, 남부 조선의 처참한 인민항쟁의 첫 희생자로 사라진 남편! 쌀을 다오! 외치며 도탄에 빠진 인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민의 동무로서 싸우다가 원통하게도 반동의 총알에 피를 뿜으며 쓰러진 남편의 그 창백한 얼굴이 불현 듯 눈앞에 떠올랐다. 벌써 그에게는 상한 새에 대한 동정심 따위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참을 수 없는 탄격분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이럴 때마다 그는 자칫하면 그만 앞뒤를 가리지 않는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되는 성미였다.¹⁵⁾

13) 이순욱, 『광복기 요산 김정환의 문학 활동 연구(1)』, 『비평문학』 47, 한국비평문학회, 2013, 241쪽. 해방기 요산의 정치, 문학 활동은 이 논문을 참고할 것.

14) 오현석, 『김정환 소설의 공간정치학』, 부산대 박사 논문, 2017, 99-100쪽.

15)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설날』, 『김정환전집』 2권, 2008, 176쪽.

<설날>에서 호출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 투사들이었지만 해방 이후 그들은 이념의 대립 속에서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민족 해방이라는 대의(大意)를 위해 목숨까지 내고 일제와 싸웠던 호출의 가족에게 남겨진 것은 정부를 향하는 분노뿐이었다. 그런데 이 작품에 중요한 지점은 호출 가족의 희생이나 분노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강력한 의지에의 표현이다. “쌀을 다 오”, “격분이 이글이글 타올랐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현 상황을 타개할 자신감을 나타내고 독자들이 여기에 동참하기를 선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1947년에도 여전히 남한에서 좌파세력이 힘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작가가 가진 이념적 투쟁의 자신감을 드러낸다. 특히 호출이라는 아이의 눈에 비친 가족의 투쟁과 고난, 또 다른 희망과 용기는 도래할 미래에 대한 강한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게 해준다. 결론부에서 붉은 깃발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10월 인민항쟁 때 희생된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 호출의 가족을 통해서 작가가 지향하는 이념은 인민, 민중, 동포라는 단어와 맥이 닿아 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요산에게 해방기 이념의 지향은 민중 지향이라는 작가 본래의 의식이 담겨 있음을 호소한다.

하지만 해방기 요산의 문학작품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일제강점기나 1960년대 이후 형상화했던 민중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당연히 민중 지향 중심의 이념화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이념 지향의 민중호소 문학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이다.¹⁶⁾ 물론 그 기저에는 여전히 민

16) 김정환 소설의 민중지향성이 드러나는 소설은 일제강점기 <사하촌>부터 1960년대 <모래톱 이야기> 이후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래서 김정환 문학은 민중·민족문학으로 규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민중지향성을 민중 지향과 민중 호소로 구분했다. 그 이유는 해방기와 한국전쟁기 작품은 민중들의 삶을 드러내려는 목적과 더불어 민중들에게 작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해방기에는 좌파 이념의 전파와 세력 확산을 위한 목적을 지향했고, 한국전쟁기에는 해방기 이념 지향을 벗어나 반공산주의적 목적을 지향했다.

중들의 삶이 긍정되기 위해서 이념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의식이 녹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환이 발표한 일제강점기나 산업화 시대의 작품에는 농민, 노동자, 하층민이 주요인물로 등장한 것에 비해서 이 시기 작품들에는 이념을 지향하는 인물군이 등장하기 때문에 민중지향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부차적인 요소가 될 뿐이다.

이 시기 요산의 작품들은 이념지향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일제 청산이라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옥중회갑>과 <설날>은 노백용이라는 독립투사이자 건준(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요산 자신도 속하게 된 좌파 단체가 당위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있다. 즉, 좌익단체는 우익단체와 일제 청산이라는 지점에서 전혀 다른 선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요산은 일제 말기 일제의 수탈기구인 경남 면포조합 서기를 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한 스스로의 문제적 자각에 있다.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평생 독립운동을 했던 노백용, 강대홍, 김동산 등의 인물들과 요산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일제 말기 자기 행적에 대한 과오를 반성한 것이다. 또 일제 강점기 적극적 저항에 나서지 못한 자신의 소심함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수많은 동지들의 희생을 보면서 요산은 일제에 대한 적극적 동조는 아니었지만 적극적 저항으로 나서지 못했던 한 인간으로서 가진 고뇌를 작품을 통해 보여주었다.

해방기 요산은 그의 전 생애를 두고 보더라도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발걸음을 남겼다. 이 시기 요산의 정치적 선택은 생존의 문제보다는 이념의 문제였다. 자신이 가진 민족과 국가에 대한 염원이 그를 정치적 인간 요산이 되도록 이끌었다. 1948년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는 그가 선택한 정치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좌파 문학작품을 발표하거나 단체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길벗>을 통해서 그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길벗>은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 발표된 작품으로 양산 출신의 혁명

가 전혁을 모델로 삼았다.¹⁷⁾ <길벗> 역시 앞서 발표되었던 <옥중회갑>, <설날>의 등장인물들과 같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중운동에 앞장섰던 전혁(전병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앞서 언급한 해방기 소설들과 후술할 <병원에서는>에 나타나는 정치적 관념이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학살의 변을 면하고 서대문의 옥을 나오게 된 그는 당시 화려한 서울의 정단을 마다하고 재빨리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 사람들은 더구나 농민들은 그를 반가이 맞았다. 10여 년 전 그의 고향에서 벌어진 경찰서까지 파괴한 그 유명한 농민투쟁은 오로지 그의 혁명적인 지도에 의한 바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는 고향을 떠난 후 오랫동안의 망명생활과 결국 8년이란 세월을 옥중에서 신음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자 곧 그는 건국준비위원회의 책임자로 떠받들렸으며 이어서 인민위원회 위원장…… 그리하여 악질 친일 관료의 손으로부터 행정과 사법의 권리를 인민에게로 돌리는 한편 일제 잔재세력의 소탕과 해방 직후의 혼란된 치안유지에 눈코 뜰 새 없이 허덕대었던 것이다.¹⁸⁾

전혁은 실제로 양산농민조합 투쟁과 양산경찰서 습격사건¹⁹⁾을 일으켜 일제강점기 양산지역 반일 투쟁 활동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양산농민조합 투쟁 사건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농민 운동 중 하나로 이를 모티브로 소설을 창작한 것은 요산의 해방기 사회주의 운동이 일제강점기 반일 운동, 농민, 민중 등 기층민을 위한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길벗>에서 전혁은 혁명가, 운동가로서 투쟁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농민들의 삶은 세밀하게 복원되지 못했다.

17) 이순옥, 「'혈탄(血彈)'으로서의 글쓰기와 문학적 실천」, 『근대서지』 13호, 근대서지학회, 2016, 329쪽.

18) 이순옥, 위의 논문, 338쪽.

19) 「1930년대 양산 농민조합투쟁」, 『양산신문』, 2005.11.23.

<http://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50>

<길벗>은 오히려 농민 봉기가 농민과 민중보다는 몰락해 가는 좌파 세력을 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이 소설은 전혁의 투쟁과 고난을 매개체로 그가 가진 신념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1948년 임시정부 수립 후 현실적으로 좌파의 몰락이 점쳐지고 좌익 세력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김정환이 소설을 창작하여 조금 늦게라도 발표했다는 것이 이런 점을 뒷받침한다. 단독정부의 수립과 좌파 몰락이 눈앞에 놓여있었지만 여전히 김정환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념의 몰락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길벗>을 1947년 7월에 창작했다가 1년이 지난 1948년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별안간 도라꾸 위에는 노래판이 벌어진다. 노래도 보통 노래가 아니고 바로 「붉은 기」의 노래 그것이 아닌가! 정복을 입은 경관들이 「붉은 기」의 노래를 부른다. 한 사람도 부르지 않는 이가 없다. 모두 소리를 높여서 힘차게 부른다. 맨 앞에 선 키 큰 친구가 이쪽으로 돌아서서 두 팔을 휘두르며 박자를 맞춘다.

전과 나는 부지중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웬일일까?

우리는 일어나섰다. 빙긋이 웃으면서 보고만 있으니깐 바로 곁에 선 친구가 나무라듯

“왜 가만이들 있소?” 하였다.

하였다.

“서장이 암말도 안 허우?”

전이 이렇게 물으니

“우리 서장은 민선(民選) 서장이라오, 친일 반동이 아니랍니다.”²⁰⁾

<길벗>의 마지막 장면에서 공권력을 대표하는 경찰들이 등장한다. 요산의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경찰 및 공권력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지점이 <길벗>에 등장한 경찰이다. 여기서도 친일

20) 이순욱, 위의 논문, 351-352쪽.

반동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는 <붉은 기> 노래를 부르는 민선 서장 하의 경찰들이 있다. 이들은 당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경찰들과는 달리 좌익의식을 지닌 이들로 전과 나와 같이 자신들의 이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과 나는 이들에게 동지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길벗>이 발표되었던 1948년 10월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정이 수립되고 좌파에 대한 우파의 공세가 심해지던 시기였다. 아직까지는 좌파 전체에 대한 몰살의 위협은 없었지만 우파의 결속을 보면서 좌파 지식인들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시기 저물어가는 좌파의 운명을 목도한 요산은 어쩌면 자신이 가진 좌파적 신념을 표출할 마지막 기회로서 <길벗>을 토해내었는지 모른다. 이후 좌파 척결을 위한 국가 보안법이 제정되고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면서 해방기 좌파활동을 한 이들은 민족의 죄인이 되고 만다. 공식적으로 그들이 남한에서 그들의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었던 마지막 노선이 1948년이였다.

요산 역시 해방 이후부터 1948년까지는 사회주의, 민족주의를 막론하고 치열하게 좌익에서 활동했지만 1949년이 되면서 더 이상의 좌파활동은 불가능해졌다. 이런 시대상황에서 김정한도 결국은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자신의 몸을 반성의 시간으로 밀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

김정한은 해방기 적극적 좌익 운동 전력 때문에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에 경상남도 국민보도연맹 임시발기인에 이름 올려야 했다.²¹⁾ 이미 좌파지식인으로 이름나있던 그가 국민보도연맹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남북 분단의 태동 시기에 요산의 적극적 좌익 이념 활동 때문에 한국전쟁기부터는 그의 삶에 많은 제약과 고난이 나타났다. 그 결과물들

21) 최원식,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 『김정한』, 새미, 2002, 46-49쪽.; 이순옥, 앞의 논문, 2013, 225-260쪽. 요산은 해방기 공간에서 좌파지식인이자 적극적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앞의 이순옥의 논문을 통해 해방기 부산·경남 지역에서 문학을 포함한 문화 영역에서 요산이 중심적 인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바로 한국전쟁과 한국전쟁 이후 썼던 많은 작품들과 에세이들에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직접적으로 목숨에 위협을 받고, 생사의 기로에 놓이고, 가족마저 고통 받는 상황은 그에게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었다. 해방기 부산을 대표하는 좌파지식인이자 대쪽 같은 선비 요산은 그러한 위협 속에서 한국전쟁기에 침묵과 자기검열, 반성에 침전하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요산 김정환이 한국전쟁기 분단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대응한 자세와 방법을 <병원에서는>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의 문제에 항상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했던 요산이 분단시대 생존, 민족과 민중, 이념 갈등의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학을 지향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3. 각인된 사상문제와 요산의 자기검열

김정환의 연보에 특이할만한 지점이 몇 군데 있다. 아무런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공백으로 있는 시기가 중간 중간 있는데 그동안은 전체를 뭉뚱그려 절필기로 보았지만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공백이 채워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적 지점이 있는데 그 중 본고에서 다룰 부분은 그 공백들 중 한국전쟁기 1950년부터 1954년까지에 주목했다.

1950년(43세) 6월, 부산대학교 조교수로 발령 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지금의 북구 엄궁동으로 피신해 있던 중에 체포되다.

1951년(44세) 10월, 청탁에 의하여 집필한 부통령 이시영의 약전 『성제소전(省齊小傳)』(태양인쇄사)이 출간되다(저자는 박창화로 되어 있음).

1954년(47세)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의하여 부산대학교 강사로 강등되다. 이 무렵 같은 대학의 이종률이 주도한 부산 경남지역 진보단체인 민

죽문화협회에서 활동하다.²²⁾

김정한의 한국전쟁기 행적은 『김정한 전집』의 「작가해적이」에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해방기 좌익 계열 단체 및 조직에서 선봉에 서서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문학작품을 통해 정치이념을 확산시키고자 왕성한 활동을 했던 김정han이 한국전쟁기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의 전면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제일 먼저 1949년 2월 16일 정보과에 피감²³⁾되면서 그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1949년 6월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고 그해 11월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지만 이미 그는 그 전부터 정보당국의 요시찰 인물로 낙인찍힌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연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바로 체포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다. 이와 같은 생존체험은 그로 하여금 과거 해방기 활동과 결별을 선언하고 전향으로 선택해야할 공포를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요산은 한국전쟁기에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더 직접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후술할 반공의식과 반공문학이었다.

한국전쟁기 요산을 비롯한 교원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해방기부터 이미 교원들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자연주의, 민주주의 계열 등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남한의 학교에서는 표면적으로 좌익 교원이 대부분 제거되고 잔류파 교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사상 검증과 검거가 벌어졌다.²⁴⁾ 교원과 교원의 관

22)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작가 해적이」, 『김정한전집』 2권, 2008, 348쪽.

23) 이순욱, 앞의 논문, 2016, 333-334쪽.

24) 안경식, 「한국전쟁기 대한민국 교원의 삶」, 『한국교육사학』 제32권 1호, 한국교육사학회, 2010, 80쪽, 82쪽. 한국전쟁 당시 잔류파와 도강파 양쪽 모두 교원의 삶은 매우 불안했다. 북한 침략 후 잔류파 중 좌익 성향 교원은 교육계의 판을 짜는 선봉에 서고, 우익 및 중도적 성향의 교원은 살기 위해 협력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수복 이후에는 반대로 도강파에 의해 잔류파는 부역자로 인식되어 고통을 받기도 했다.

계, 교원과 학생의 관계 역시 이 시기에는 불안한 상태였다. 이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학생-교원, 교원-교원의 관계는 이념으로 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만 구분지어질 뿐이었다. 즉, 전쟁기 교원은 북한에서는 사상검증과 인민재판이, 남한에서는 보도연맹과 같은 이념단체를 통해 구분되어졌다. 요산은 이런 상황에서 부산대학에 출강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후에도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삶을 지속했다.

요산 김정한은 소설가이지만 젊은 시절부터 교원(교사)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져왔다. 20대 초반 울산 대현공립보통학교를 시작으로 30대에 남해공립보통학교에서 근무했으며, 해방 이후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부산공립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40대 초반에 부산대학교에 출강을 하면서 부산대학교와 연을 맺고 교수가 되는 등 평생을 ‘선생’으로서의 삶을 지향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강등, 파면, 퇴직, 복직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국전쟁기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부유하는 삶을 붙잡아야했으며, 우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이 필요했다.

그런데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강화된 사상성 검증은 요산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이미 우리의 분단은 냉전의 질서가 그대로 대입된 남북관계 속에서 국가 폭력의 일상성을 상징할 만큼 무서운 단어가 되어 있었다. 수많은 이들이 역사적 명분이라는 권력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김정한 역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데, 특히 한국전쟁 개전 직후 경찰에 체포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신변의 불안은 6·25 발발로 절정에 달했다. 결정적인 것은 보도연맹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보도연맹은 49년 6월 5일 결성되었다. 전쟁이 나자 그는 당시 부산 근교 엄궁으로 피신했다가 군 수사기관에 체포된다. 부인과 아이들이 다른 방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이틀에 걸쳐 모진 고문을 받는다. (...중략...) 당시 보도연맹 가입자의 피해는

엄청났다(앞에 언급된 박인호, 김세룡, 노재갑, 김동산 등은 모두 이때 희생되었다.)²⁵⁾

이처럼 단독정부 수립 이후 요산에게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해방기 그의 좌익 활동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보도연맹이 축쇄가 되었다. 한국전쟁은 수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특히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일명 불온한 자들은 여지없이 최우선으로 제거대상이 되었다. 해방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좌파활동을 했던 요산 역시 그 대상에 드는 것이 이상할 것 없었다. 그와 함께 부산·경남 지역에서 좌파 운동가로 활동했던 『옥중 회갑』의 주인공 노백용 역시 고초를 겪었으며, 그의 아들 노재갑이나 김동산(김형기)은 예비검속의 칼날을 빗겨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김정환 역시 이들의 희생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가늠했을 것이다. 1950년 감옥에 피감 후 즉결심판의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긴 요산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으로 와 닿았을 것이다. 그에게 전향이란 단순히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전향인임을 증명해야할 필수 요소였다. 물론 1949년 보도연맹 임시발기인이 되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했다. 요산에게는 적극적으로 단독정부와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환대의 몸짓이 필요했다. 경남도 보도연맹은 1950년 초반 사상전향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예술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1950년 3월 29일-31일까지 부산극장에서, 4월 1일-2일까지 제일극장에서 ‘국민예술제전’을 개최하여 여러 예술가들이 참여했으며 ‘문화적 사상선양대회’를 열어 연극 등의 공연을 올렸다. 여기에 김정환 역시 참여하게 된다.²⁶⁾ 이처럼 김정환은 1949년 이후 자신의 새로

25) 조갑상, 『시대의 질곡과 한 인간의 명징함』, 『김정환』, 새미, 2002, 21쪽. 이후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노백용은 1961년, 강대홍은 1951년 부산형무소에서 발생한 발진티프스로 병사했다고 밝혀졌다. 이상헌, 『새로 쓰는 요산 김정환-⑤일제말과 해방정국』, 『부산일보』, 부산일보사, 2008.11.17.

26) 전갑생, 『부산지역 奎評 소속 보도연맹 연구』, 『역사연구』20, 역사학연구소, 2011, 224쪽. 『민주중보』 1950.3.26·29. 재인용.

운 이념적 위치를 확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적극적 전향의 필요성을 깨닫고 한국전쟁기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실 김정환은 해방기 임시정부와 김구 주석을 지지한 임정 지지자였다. 그에게 조국 해방과 단일국가 수립에 대한 염원은 임시정부의 안착과 직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임시정부는 고국에 안착하지 못했는데 요산은 분단의 가장 큰 원인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받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했다.²⁷⁾ 게다가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반민족 처벌법이 제정되고 반민족 해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발족되었지만 민족과 민중들의 연원은 반영되지 못한 채 식민지 잔재의 청산은 불가능해져버렸다. 오히려 요산은 좌파 불순분자로 몰려 목숨의 위협을 받는 자신의 처지와 같이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이념의 아이러니가 지속되는 분단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했다. 이 시기 김정환의 체험은 그의 마지막 소설 <슬픈 해후>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겠소?” 키다리는 성수를 돌아보았다. 지프차 앞 길바닥에 웬 여인 하나가 실신을 한 듯이 누워 있었다. 파퓁 머리에 쪼이는 게 있어서 성수는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희미한 달빛 밑이지만 고대 아내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여보!” 성수는 쓰러지듯 그 곁에 몸을 웅크렸다. “아이고…….” 수정택은 겨우 모기만한 소릴 내며 성수를 쳐다보았다. “엄마!” 유나와 덕기는 에미의 손을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얼마나 당했는지 얼굴은 몰라볼 만큼 부어 있고 쪽이 풀린 곱슬머리는 모양 없이 뒤흔켜어져서 불의 절반을 덮고 있었다. “너무 심하지 않소……?” 성수는 허리를 다시 펴고 두 젊은이를 노려보았다. 죽어도 할 말은 하고 마는 성미다. “다 선생 죄요. 열린 타기나 하시오.”²⁸⁾

요산은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형상화하여 <슬픈 해후>를 창작했다.

27) 김정환,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290쪽.

28)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김정환전집』 4권, 2008, 320쪽.

거의 여든에 가까운 나이에 창작의 끈을 놓지 않고 노작가가 펜을 든 것은 단순히 작가로서의 창작 욕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김정한이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슬픈 해후>를 택한 이유는 그의 생애 동안 가장 큰 고통이자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이기에 작가로서 마지막 작품을 자신과 고생한 가족을 위해 남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해방기에도 경찰 신세를 진 적이 여러 번이지만 1950년 경찰에 검거된 이때만큼은 아내와 자식을 포함해 가족들까지 고초를 겪고 목숨이 절명의 위기에 놓이기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요산은 어떤 시련과 고통보다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안함이 강했을 것이다. 이처럼 <슬픈 해후>를 통해서 요산의 인간적 면모와 이념적 고뇌를 읽을 수 있다.

김정한은 1960년대 이후 자신의 사상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다. 정권을 쥔 권력자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대학 강의와 작가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사회 부조리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래서 이념적 측면에서는 중간지대, 중간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김정한은 자신의 과거 해방기 이력과 고초 때문인지 그 이후 중간지대에 대한 언급이나 설정이 거의 없이 모호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기 <병원에서는>은 김정한의 생애나 작품 경향을 고려할 때 독특한 작품이다.

한국전쟁 당시 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군작가로서 전선에 뛰어 들었다.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많은 작가들이 국군의 사기진작과 문예작전의 일환으로 종군작가단을 구성했고 각종 기관지를 발행했다. 그들에게 종군작가는 “전쟁이라는 미증유의 상황”²⁹⁾ 속에서 문인들이 국가에 대한 봉사와 함께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이념성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대표적으로 염상섭, 이무영 등과 같은

29) 김윤식,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편, 『6·25전쟁문학-세대론의 시각』,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17쪽.

문단의 핵심작가들이 합류한 중군작가단은 체제 옹호의 역할과 안정화의 당위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 요산은 이들 피난 작가들과는 달리 부산에 터를 잡고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전선의 상황을 체험하지 못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김정한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체험의 서사화에 있는데 후방인 부산의 전시 모습은 중군작가들의 중군체험기나 소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전쟁의 체험은 그에게 결락된 지점이었다, 그래서 요산이 1950년대 발표한 <사라진 사나이>, <처시하>, <남편 저당>, <개와 소년> 등의 작품은 전시문학에서 드러나는 전쟁의 직접적인 참상보다는 후방 도시에서 전쟁의 흔적이나 일상성에 관심을 가지는 작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 김정한의 문학은 다른 중군 작가들이나 피난 작가들이 보여주는 피난 문단의 전쟁 체험, 피난지 문학과는 분명 다른 지점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기 부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중들의 삶은 전쟁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일상성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1950년대 요산은 이렇듯 작품의 양적, 질적 논의를 떠나서 여전히 평범한 ‘우리’에게 시선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전쟁기 요산의 이념에 대한 침묵은 이념에 대한 증거가 되는 증표는 아니었다. 요산은 다른 피난작가들이나 중군작가들이 가진 실제 전쟁 감각을 갖지 못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몸짓이 필요했다. 즉, 요산은 해방, 단독정부 수립, 국민보도연맹 가입, 예비검속,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사회 변화에 몸을 내 맡기고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기 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제어해야했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자신은 빨갱이가 아니라는 존재증명을 통해 생존 및 지적활동을 도모”해야 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보도연맹 가입, 좌익 활동 등 경력이 있는 문학자식인으로서 요산은 “김태준의 사형(1949년)과 유진오의 처형(1949년 사형 선고, 전쟁 발발 직후 처형), 문학가동맹 활동한 노천명의 20년 징역 선고”³⁰⁾ 등을 거울삼아서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했다. 이전 일제의 탄압과 해방기 이념의 혼란에서는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추상적이었다면 이 시기 ‘생과 사’는 바로 눈앞에서 선택해야 할 구체적인 선택지였다. 그것이 바로 반공문학이다.

한국전쟁기 반공텍스트는 일반적으로 “반공이데올로기의 선전이라는 본질적 목적 외에 당시 문인들의 내밀한 고백적 글쓰기라는 양가성”을 지니고 있다.³¹⁾ 즉, 반공텍스트는 헤게모니를 손에 쥔 부류의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사상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기제로 작동했고, 그 반대편에서 있던 작가들에게는 “이념적 타락을 속죄하고 고해성사와 같은 고백적 글쓰기를 통해 전향을 입증하는 도구로 쓰였으며 이념의 호출기제로 활용”되었다.³²⁾

이런 측면에서 <병원에서는>은 요산의 이념적 과오에 대한 자기반성이자 이념의 전향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자기검열의 결과이자 산물이다. 그런데 <병원에서는>은 일반적인 반공문학의 경향성을 조금 빗겨나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는 전쟁이 한창인 상황이지만 후방에서만 있었던 김정환의 경우 전선 문학을 창작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념 지향 문제를 벗어나 개인의 안위를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다.³³⁾ 즉, <병원에서는>은 요산의 현실적 필요와 목적에 의해 창작된 전쟁문학, 반공문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51년 『부산일보』에 발표한 <병원에서는>은 요산이 분단 상황에서 취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재독할 필요가 있는 작품이다. 요산의 작품 중에 친 정부, 친 권력적인 작품은 거의 없었다. 항상 민중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민중의 언어를 옮겨왔기 때문에 고통

30) 이봉범,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15, 상허학회, 2005, 64쪽.

31) 서동수, 『한국전쟁기 반공텍스트와 고백의 정치학』, 『한국현대문학연구』20, 한국현대문학회, 2006, 89쪽.

32) 서동수, 위의 논문, 81쪽.

33) 오현석, 위의 논문, 137쪽.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정부와 권력은 적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요산의 작품 경향을 빗겨가는 작품이 <병원에서는>이다. 요산에게 1950년 옥중 체험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그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불순분자라는 이름표를 떼지 않는 이상 당시 전쟁 상황과 분단 현실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후 반년도 되지 않아 <병원에서는>을 발표했다. 그에게 <병원에서는>과 같은 작품은 전향 후 자신의 사상적 순결성 회복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시급하게 필요했던 작품이었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살아야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했던 긴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요산은 자신의 소설 증거의 유일하게 반공의식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 수 있다.

아전병원에서 고생하시는 아저씨들을 생각하면 저는 자꾸만 부끄러운 마음이 솟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싸우다 원수들의 총칼에 상처를 입고 고생하시는 아저씨들에게 따뜻한 약 한 첩도 드리지 못하고서 어찌 이 나라 백성이라고 얼굴을 쳐들고 다닐 수 있겠나이까? (...중략...) 공산당이 기를 쓸 때는 저는 이를 갈면서 신문을 팝니다. 아저씨들이 이길 때는 기가 나서 뚝니다. 압록강까지 쳐들어갔을 때는 어찌도 반가운지 눈물까지 났습니다. (...중략...) 아저씨들이나 UN군들이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일선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고 있는 이때 총후에 있는 국민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아저씨들이 누구를 위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지 알지도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나랏일에 협조하는 마음도 적을 것입니다.³⁴⁾

이 소설은 자방이와 영수라는 두 친구의 대화가 중심이 되고 그 속에

34)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병원에서는>, 『김정한전집』 2권, 2008, 194-196쪽.

중학교 1학년 김명호라는 아이의 국군위문편지가 담겨있는 구조이다. 위에 인용한 명호의 편지는 당시 반공주의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 참전 군인과 UN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명호의 편지를 통해서 이 소설의 목적이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난다. 종군작가들이 국군의 사기 진작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작품을 쓴 것과 같이 요산도 국군과 연합군을 긍정하며 후방에 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단지 차이는 전선과 후방이라는 공간적인 차이일 뿐이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반공의식이 노골적인 이와 같은 작품을 요산은 꼭 써야한 것인가? 그전에 당시 전쟁문학으로서 매우 일반적이고 특별할 것 없는 반공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병원에서는>이 요산 소설이기에 다르게 읽힐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해방기와는 정반대의 이념으로 재무장을 시도한 요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정한은 1946년 <옥중회갑>, 1947년 <설날>, 1948년 <길벗> 등 좌파적인 색채가 강한 작품들을 좌파계열 매체에 발표했다. 특히 <길벗>은 1948년 10월 『중성』(衆聲)에 발표된 작품으로 창작은 1947년 7월 29일로 표기되어 있다.³⁵⁾ 이 시기는 이미 좌파문단이 와해되면서 우파진영이 주도권을 잡았으며 1948년 8월에는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요산은 자신의 신념과 이상을 소설에 담아 대중들에게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요산은 1940년대 후반까지도 좌파적 의식을 분출해내던 적극적 활동가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요산의 이러한 활동을 사회주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가 평생 관심을 주었던 민중과 민족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한쪽으로 편향된 시선을 지닌 작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쟁 직전까지 작품 활동은 <병원에서는>과는 전혀 다른 양

35) 이순욱, 앞의 논문, 2016, 320-352쪽.

상이다. 오히려 정반대의 성향이 충돌하는 차이를 가진다. 또 요산이 평생을 지향한 민중의식도 이 작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요산의 작품 세계에서 매우 독특한 지점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분단 현실에서의 권력의 폭압성을 직접 경험했던 1950년 8월을 떠올리며 자기검열의 수준을 넘어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와 같은 작품을 써야했다. 하지만 이후 시기 요산의 행적을 생각한다면 한국전쟁기 요산의 반공문학은 또 다른 결로 읽힐 수 있는데 자기반성과 자기검열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이나 검열이라기보다는 당대 삶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1960년대 이후 끊임없이 반정부, 반권력적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는다면 요산의 한국전쟁기 작품은 요산의 내면의식과 또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다.

영수는 자기의 눈 따위는 벌써 문제가 아니었다. 커다란 민족의 불행이 그를 삼키고 있었다. 그는 곧 거리로 뛰어나가서 가엾은 전제동포들을 열싸안고 한바탕 울고 싶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들을 그렇게 만든 원수놈을 향해서 돌진하고 싶었다. 내려 갈기고 싶었다.³⁶⁾

요산은 전쟁의 불행에 대해 소설 속 영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원수놈을 향해 돌진”하고 “내려 갈기”려는 모습은 직설적인 어법을 통해서 자신의 저항성이 북을 향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전쟁을 민족의 불행으로 확대시켜 연대감에 호소하고 있다. 과장에 가까운 방식으로 소설 속 반공 적대감을 드러내는 방식의 서술은 요산 김정한이 문학적 형상화보다는 반공 자체를 얼마나 질실하게 드러내놓아야 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흘린 피는 결코 헛피가 아닌 줄 아네. 머잖아 이 땅에 통일과

36)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병원에서는>, 『김정한전집』 2권, 2008, 192쪽.

자유가 올 것어요. 그리운 사람도 만나볼 수가 있을 것이고……. 실로 나는 내 눈깔 따위는 그리 안타깝게 여기지 않아. 조국이 있고, 자유가 있다면 한평생 앞 못 보는 거지가 되어도 좋아.³⁷⁾

대부분의 요산소설에서 희생정신은 민족과 민중을 향해 있고 국가를 향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국가는 권력자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예속되어버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방이와 영수의 대화에서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음을 맹세한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해야함을 긍정한 것이다. 이런 장면들 역시 요산의 일반적인 이념이나 사상과는 거리감이 있다. 요산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산이 한국전쟁기 품었던 진정한 내면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급하게 반공을 부르짖어야 했지만 그 이면에는 민족 통일과 화합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은 단순히 요산 김정한의 자기검열 결과 도출된 결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이중적인 자기 방어기제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요산은 반공문학을 통해 이념의 순수성을 회복했음을 외부에 보여주면서, 내부적으로는 민족의 통일과 민중이 살아가는 터전 회복을 지향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병원에서는>은 요산이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겪었던 일련의 체험이 작가의 의식에 파고들어 자기 검열을 통해 생산된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즉, 분단 상황은 예술가로서의 작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작가를 이념의 심판대에 세워버렸다. 그래서 김정한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사상성을 드러낼 장치가 있어야 했다. 종군을 자처한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최후방에 남아 있던 요산은 살아남기 위해 불온분자로 낙인찍힌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야 했다. 요산이 반공문학으로 볼 수 있는 <병원에서는>을 선택한 점에서 심리적 갈등과 고뇌의 한 단면을 볼 수

37)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위의 책, 201쪽.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정권에 대한 아부나 긍정이라기보다는 요산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생존을 위한 생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반공주의로 위장해서 생존을 확보하고 본인이 지향했던 목표를 영속하기 위해 장치로 볼 수 있다.

4. ‘민족과 민중’의 호출을 통한 이념적 모색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생명의 위협에 바로 노출되어 있던 요산은 오랜 시간 한없이 자기 몸을 낮추어야 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불안함 속에서 다시금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 부산시문화상을 수상하면서 사회활동을 모색했지만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또 한 번 해방기의 좌익 활동이 축쇄가 되었다. 즉, 요산은 <병원에서는>과 같은 반공문학으로 이념적 전향을 밝히고,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면서, 차츰 안정되어 갔지만 군사정권은 다시 한 번 그에게 철퇴를 가했다. 그래서 문학 창작활동은 선부르게 시작하지 못하다가 1966년 <모래톱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다시 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문단 복귀 후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시금 이념적 모색에 들어가게 된다. 단순히 좌파나 우파적 사고나 이념이 아니라 결국 작가가 나아가야 할 길은 민족과 민중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더 나아가 분단 조국에 대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분단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 그 이후 행동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요산은 일제강점기 가졌던 작품의 주제의식을 심화시켜 민중과 민족에 대한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갔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전에 전향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한 또 다른 회귀의 방식이기도 했다. 요산은 문단복귀 이후 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장, 예총 부산지부장, 전국 지방국립대학 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 자

유문인실천협의회 고문, 민족문학작가회의 초대회장 등 사회적인 활동도 넓게 이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요산은 예순이 다 되어서야 어느 정도 삶의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작품을 통해서 더 강하게 권력의 반대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요산은 분단의 시작을 미·소 균정으로 인해 남·북이 분리되고 임시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외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방 당시 “임정이 정식정부로 눌러앉았다면 남북 분단의 비극은 곧 해결될 것”³⁸⁾이라고 믿었던 그였기에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특히 민중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요산은 남북이 이념과 감정의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분단과 독재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민중들이 허덕이는 모습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상처들을 어루만졌다.

통일문제는 정부에만 맡기라고 하지만 40여 년을 정치꾼들에게 맡겨 보아도 통일은커녕 분단만 더욱 고착되어가니 대학생들의 지난 6월10일의 남북학생회담 시도는 오히려 당연한 움직임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³⁹⁾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민족문학론이 민중문학론으로 확산되는 시기였으며 민중에 대한 인식이 이전 지식인 중심에서 민중 중심으로 기층문화의 변화가 인지되던 시점이었다. 요산 역시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결을 같이하며 민중의 힘을 강조했다. 요산은 분단의 시작은 민중의 뜻이 아닌 정치꾼의 야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1988년 6·10 남북학생회담의 시도가 민중이 분단시대에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다. 반세기 이상 분단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분단 해결 방

38) 김정환, 『황량한 들판에서』, 황토, 1989, 144쪽.

39) 김정환, 위의 책, 145쪽.

안을 아무도 마련하지 않았다. 지배자들은 남북 할 것 없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분단 상황을 이용하기에 바빴다. 결국 분단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주체는 민중이 되어야 함을 요산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가 고문을 맡은 자유실천문인협의회에서 발간한 『민족의 문학 민중의 문학』에는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통일에 대해 문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독재, 독점자본의 착취를 벗어나는 것⁴⁰⁾이 통일을 위해 민중이 쟁취해야할 길임을 주장했다. 그간 외세의 간섭과 정치인들의 권력욕 때문에 민중들이 가진 분단 극복의 노력과 통일에 대한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요산은 분단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민족과 민중’을 작품 속으로 호출했다. 요산의 해방기 이념 지향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과 억압에 저항하던 저항정신이 뿌리가 되었으며, 한국전쟁기 생존을 위한 위장술로 나타났으며, 분단 복귀 후 펼쳐지는 민족·민중 문학의 씨앗이 되었다.

특히 작가가 작품 활동 말기에 창작한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와 요산의 유일한 장편소설인 <삼별초>를 통해서 분단시대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읽을 수 있다.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조선이 해방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식민지 모습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다른 방식(예를 들면 자유경제를 가장한 경제적 예측)으로 재현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소 양국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은 우리 스스로 봉합하지 못하고 분단의 싹을 틔워버렸다. 요산은 외세의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고 굴복해 버린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며칠 전 그들이 고구마 밭 끄트머리 바닷가 낭떠러지 위에서 있는 두 개의 석탑을 본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건 미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인들과 함께 나서서 싸우다가 죽거나 자결한 남녀 학생들

40) 백기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통일을 위한 문학』, 『민족의 문학 민중의 문학』, 이삭, 1985, 22쪽.

의 거룩한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석탑이야.” 다계오씨는 석탑을 가리키며 자랑삼아 그렇게 말했거든요. 거기 서 있는 <건아(健兒)의 탑>은 남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백합(百合)의 탑>은 여학생들을 위한 것 이래요. 어머니, 정말 독종들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젓더미가 된 황무지를 냉큼 일구어 지금과 같이 거대한 농장을 차릴 수 있었고, 그러지 못했기에 우리들은 이렇게 또 그들의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⁴¹⁾

일본으로 외화를 벌기 위해서 농장으로 간 복진은 주인집 아들 다계오씨에게 바닷가 낭떠러지에 있는 석탑의 내력을 들었다. 오끼나와는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 패전을 상징하는 곳이다. 패전 당시 미군의 폭격과 진압으로 폐허가 된 곳이기도 하다. 외세에 짓밟히는 동안 오끼나와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저항을 했고 그 상징이 석탑이다. 복진은 이들을 “독종”이라고 했지만 내심 부러워한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다꼬’라고 부르고 그 숙소를 ‘다꼬베야(문어수용소)’라고 지칭한 것을 떠올리며 우리의 역사를 반성하기도 한다.

조선과 일본 모두 외세에 의해 정복당했고 패배했지만 민족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우리만 분단의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또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라는 반문은 외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는 작가의 자기질책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학도병이 조선 독립군을 잡기 위해 출정했고 해방기와 한국전쟁기에는 미·러의 방패막이가 된 남북이 서로에게 총을 휘둘렀다. 우리 지배층들은 ‘우리’가 아닌 ‘나’의 안위를 걱정했고 우리의 민족성을 빼 없는 ‘다꼬’로 만들어 버렸다. 작가는 “새 질서로서의 수동적 역사의 시작”⁴²⁾이라는 현실 앞에서 민중들의 의지만이 민족의 뼈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41)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김정환전집』 4권, 2008, 278-279쪽.

42) 김영호, 『분단 극복과 문학』, 『民意』 3집, 1985, 일월서각, 154쪽.

1980년대는 ‘민중’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우리 역사에서 주체를 뒤바꾸는 혁명적인 시기였다. 1960년대 참여문학에서 시작된 사회변혁에 대한 열망은 민족문학, 리얼리즘문학, 농민문학, 노동자문학에 이르는 거대한 민중문학의 흐름을 낳았다.⁴³⁾ 김정한의 <삼별초>는 이런 민중 주체 역량의 긍정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1980년대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비판하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답을 찾던 시기였다. <삼별초>에 등장하는 지배층 역시 조국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원나라에 붙어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즉, 이 소설은 대몽항전에 나선 민중이 중심이 된 삼별초와 그들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지배층의 시선을 통해서 민족 내부의 모순을 고발하는 작품이다.

1980년대 거의 천 년 전 역사를 끄집어 내 우리 앞에 내 놓은 노작가의 속내는 단순히 우리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역사소설을 창작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요산의 소설에서 삼별초의 역사는 단순히 외세를 극복하기 위한 항쟁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몽고지배기 고려는 몽고에 의해 우리 산하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수탈당하고 희생되는 과정에서 지배층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시 민중들을 불모로 내세웠다. 항쟁을 결의한 삼별초는 몽고 원정군의 앞잡이가 된 고려 정부군에 의해 동족끼리 칼을 겨누었다. 천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삼별초가 끝까지 결사 항전했던 강화도, 진도, 제주도는 민족이 분단의 최전선이었던 것이다.

지금의 원종 임금이나 김준 일파는 사실 몽고의 꼭두각시야. 겨레나 나라의 장래 같은 건 요만치도 안중에 없고 그저 자신들의 부귀영화만에 눈깔들이 뒤집혀 있는 셈이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몽고군이 영원히 이 땅에 주둔해 있는 게 자기들에겐 좋다는 거야. 사실은 평화를 앞세우고 있지만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여 몽고군이 떠날까 불안에 손톱이 안 들어가는 꼴들이지. 그러니까 몽고놈들의

43) 임현영, 앞의 책, 366쪽.

영구 주둔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괜히 있지도 않을 왜군의 침입을 나발 붙어 대는 거란 말야.(…중략…) 아무튼 이번 남파는 몽고의 괴뢰인 현 집권자들이 한줌도 안 되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취하는 개수작이니까 그렇게 알고 틈 보아서 고향에 가 폭 쉬고 오게나.⁴⁴⁾

원나라 지배기 고려의 권력자들은 “몽고의 괴뢰인”에 불과한 민족의 반역자들이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몽고의 영구 주둔을 환영했다. 즉, 지금 현재가 유지되고 사회의 변혁을 바라지 않는 태도였던 것이다. 그들은 민중들을 착취해서 원나라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이어가면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과 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중의 고통은 외면한 채 삼별초 토벌에 나섰다. 이 장면은 현재 분단 현실과 오버랩 되면서 분단을 다시 되돌아보게 한다. 열강의 사이에서 주체적 해방을 쟁취하지 못하고 이념 대립에 휩쓸려 버린 우리의 근현대사는 삼별초에 총부리를 겨눈 정부군과 다를 바 없다. 작가는 천 년 전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한 지배층을 강하게 비판하고 분단의 역사를 극복해야함을 주문하고 있다. 결국 민족의 분열과 분단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중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분단을 직시하지 못하는 지배층은 더 이상 민족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산은 분단시대의 해결책으로 1980년대 폭발적으로 끓어오른 민족정신과 민중의 역할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와 <삼별초>는 권력자의 횡포와 부정으로 인해 민중이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런데 작품 속 위정자들의 타락과 나약함은 오히려 민중들의 활동을 더욱 촉진시켰고 왜곡된 민족정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한이 두 작품을 통해서 민족과 민중을 호출한 것은 분단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고를 통해서 분단은 이념의 문제로 시작되어 요산의 자기 체험으

44)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삼별초>, 『김정한전집』 5권, 2008, 90-91쪽.

로 인한 이념의 부정, 전향, 나아가 재인식까지에 이르러 민중과 민족을 소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요산의 한국전쟁기 자기검열과 이념적 모색은 그 시기 사회의 억압으로 인한 생존의 흔적이지만 이후 다시금 자기 의식을 민족분단의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민족과 민중으로 환유시키는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나오며

본고는 요산 김정환의 삶과 작품 분석에 있어서 기존 연구들이 요산 문학의 저항성, 민중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해방기 요산의 행적과 한국전쟁기 요산의 문학작품을 통해 이 시기 요산이 이념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념의 선택 기로에서 고통 받은 인간 김정환의 시각으로 당시 여러 작품들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한국전쟁기 발표한 <병원에서는>과 에세이를 중심으로 하여 요산의 해방기 행적과 작품 세계를 다시 한 번 살피고 한국전쟁기 반공문학 성격을 포착하여 그 이면을 분석하고자 했다.

요산은 보도연맹 가입 후 1950년에 경찰에 체포되어 가족까지 고통 받는 상황에서 생사의 위협을 경험했다.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던 요산은 자신의 사상성을 검증받고 드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다. 그 결과 <병원에서는>이라는 작품이 창작되었다. 불의에 참지 못하는 요산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소설은 작가의 일반적인 창작 모티브를 벗어나 있는 작품이다. 그 이유는 다른 작품들은 세계에 대해 민중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병원에서는>은 철저하게 사상에 대한 자기검열의 잣대로 작품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권력에 동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인간 본연의 생존 욕구에서 나

은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아야하겠다. 즉, <병원에서는>은 요산이 겪었던 일련의 죽음에 대한 작가의 의식에 파고들어 자기 검열을 통해 생산된 문학이다. 또 자기 검열은 생존을 위한 위장술로도 볼 수 있다. 해방기-한국전쟁기-1960년대 이후 시기를 연속선 상에 두고 보면 <병원에서는>에서 반공을 외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민족의 통일과 자신의 지향점으로 나아갈 의지를 품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분단 상황이 예술가로서의 작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작가를 이념의 심판대에 세워버렸다. 그래서 김정환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사상성을 검증받아야 했으며, 전선 최후방에 남아서 불온분자로 낙인찍힌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는>이라는 작품을 창작했다. 하지만 이것을 당시 정권에 대한 아부나 긍정이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작품을 바탕으로 요산의 자기검열이 한국전쟁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단 복귀와 함께 이전의 방식을 빌어 더 견고해진 이념 실천의 방안을 모색한 작품들을 다루면서 인간 김정환의 이념과 의식에 다가가고 있음을 밝혔다.

요산에게는 이념과 분단을 논할 자리가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해방기,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좌파 문화, 문학 운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분단에 대한 언급은 요산 자신의 사상검증의 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산은 분단과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작품을 통해서 현재의 사실적 분단현실과 지향점을 드러냈다.

분단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요산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으로 ‘민족과 민중’을 들었다. 분단 현실은 미·소 양국의 거대한 냉전 체제가 극동에서 표출된 결과로서 한반도에 분단을 가져왔다는 것이 요산이 가진 한국 분단 현실에 대한 관점이다. 단일 국가 형성의 기회는 임시정부가 자리 잡지 못하고 김구 선생이 희생됨으로써 끝나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요산은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해 민중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했다.

요산 김정환은 1966년 <모래뚝 이야기>를 발표하며 다시 창작의 길로 들어섰고 사상검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 물론 작가의 신념에 따라 민족과 민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이었다. 이 시기 요산은 분단 해소를 위해서 민족과 민중의 적극적 인식을 필요로 했다.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와 <삼별초>는 이런 민중의 역할과 힘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분단과 통일에 지금까지 관여한 남북의 권력은 여전히 통일을 가장한 분단의 지속이 주는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는 분단의 현실 속에 민중들의 잔혹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삼별초>는 나라를 지키려는 삼별초를 같은 민족인 정부군이 몽고군의 방패가 되어 대립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금 현재의 분단 현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단 현실은 결국 민중에 의해서 권력자들의 이기심을 이겨내야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요산은 그런 민족과 민중의 힘을 믿었던 것이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분단현실에서 작가로서 분단 시대의 문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요산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그가 남긴 분단 극복의 씨앗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제 우리가 요산의 호출에 답을 할 차례이다.

참고문헌

-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 김경연, 「김정한 미발표 장편 자전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77집, 한국문학회, 2017, 263-308쪽.
- 김승환, 『분단문학과 분단시대』, 『분단 문학 비평』, 청하, 1987.
- 김영호, 『분단 극복과 문학』, 『民意』 3집, 일월서각, 1985.
- 김윤식,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편, 『6·25전쟁문학-세대론의 시각』,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 _____, 「추산당과 가야부인- 김정한론」,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5-46쪽.
- 김주현, 「요산 김정한 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한국문학논총』 제50집, 2008, 47-74쪽.
- 김정한, 『인간단지』, 한얼문고, 1971.
- _____, 『김정한소설선집』, 창작과비평사, 1973.
- _____,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 _____, 『낙동강의 파숫군』, 한길사, 1978.
- _____, 『황량한 들판에 서서』, 황토, 1989.
- 박태일, 「김정한 희곡 『隣家誌』 연구」,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87-121쪽.
- 백기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통일을 위한 문학」, 『민족의 문학 민중의 문학』, 이삭, 1985.
- 서동수, 「한국전쟁기 반공텍스트와 고백의 정치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0, 한국현대문학회, 2006, 233-247쪽.
- 안경식, 「한국전쟁기 대한민국 교원의 삶」, 『한국교육사학』 제32권 1호, 한국교육사학회, 2010, 75-102쪽.
- 오현석, 「김정한 소설의 인물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13.

- _____, 『김정한 소설의 공간정치학』, 부산대 박사논문, 2017.
- 요산 김정한선생 고회기념사업회, 『요산 문학과 인간』, 오늘의 문학사, 1978.
- 이봉범,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15, 상허학회, 2005, 49-98쪽.
- 이순욱, 『광복기 요산 김정한의 문학 활동 연구(1)』, 『비평문학』 47, 한국비평문학회, 2013, 225-260쪽.
- _____, 『‘혈탄(血彈)’으로서의 글쓰기와 문학적 실천』, 『근대서지』 13호, 근대서지학회, 2016, 320-352쪽.
- _____, 『한국전쟁기 부산 피란문학과 전시동원』, 『영주어문』 41권, 영주어문학회, 2019, 451-474쪽.
- 임현영, 『분단시대의 문학』, 태학사, 1992.
- 전갑생, 『부산지역 쏠評 소속 보도연맹 연구』, 『역사연구』20, 역사학연구소, 2011, 207-244쪽.
- 조갑상, 『요산 김정한 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역문학연구』 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11-32쪽.
-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김정한 전집』 1-5, 작가마을, 2008.
- 최원식, 『90년대를 다시 읽는 요산』, 『김정한-대쪽 같은 삶과 문학』, 새미, 2002.
- 황국명, 『요산문학 연구의 윤리적 전회와 그 비판』,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289-318쪽.

<Abstract>

Self-censorship and Ideological Search of Yosan Kim Jeong-Han

Oh, Hyoun-Suk* · Cha, Yun-Jung**

This paper tried to grasp the artist's novel creation consciousness and the intention behind it, focusing on Yosan Kim Jeong-han's novel "In the Hospital" and essays at that time. To this end, the study carried out research in two aspects: tracking the movements and rituals of the Liberation Period of Yosan to find a connection point with the Korean War, and analyzing the causes of the development of novels in a different way from the existing researches of the Yosan Literature.

First, Yosan Kim Jeong-han was a representative intellectual of the left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ocialist and nationalist movements of the liberation period in Busan and Gyeongnam. He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many organizations, including leftist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such as literature, art and politics. However,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government, the right became power, and his activities and ideologies began to be a problem. In other words, there was no way for the left to survive in South Korean society. Since then, the left has become a subject of disarmament in South Korea, and Yosan Kim Jeong-han has realized that ideological

* Pusan National Univers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

conversion is essential as he overcame several deaths.

Next,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ly on the resistance, folklore, and realism of Yosan literature. However, “in the hospital”, it is difficult to analyze in the existing Yosan literature framework. Korean war writers could not be free from state censorship. So they proved their ideology by working as a war writer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war or by creating anti-work products. The novel “In the Hospitals” is also the result of Yosan Kim Jeong-han’s joining the Confederation of Press, resulting in self-censorship and proof of ideology after ideological conversion. In other words, this novel has almost the only anti-communism in Kim Jeong-han’s works. This is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hospital”, first, Kim Jeong-han struggled to escape the threat of life during the Korean War, second, to show his ideological attitude clearly, and third, to find ideological search through self-censorship.

However, after the return of the paragraph in the 1960s, Kim Jeong-han’s work goes back to the people. People appear again in the novel and give affection to them. But this tendency should not be read simply as regression. Kim Jeong-han, who should have concealed himself through the conversion of ideologies and the creation of anti-public literature, voiced the problems of the people and divided Korea as he escaped from the threat of survival. Division is, after all, a matter of ideology. Numerous colleagues and Yosan himself who were sacrificed to ideology also had difficulty escaping the bonds of ideology. His thoughts eventually lead to the departure of the divided state and to the state centered on the people. So Yosan has been interested in the lives of people since the 1960s and became

actively involved in the society.

Key Words : Yosan, Kim Jeong-han, In Hospital, Anti-Communism,
Nationalism Self-Censorship, Korean War, Left, People

■ 논문접수 : 2019년 11월 25일

■ 심사완료 : 2019년 12월 10일

■ 게재확정 : 2019년 12월 10일

